

## 한국미술정보센터와 김달진 관장 한국미술 아카이브의 미래는 어디로?



김달진 관장의 직함은 그가 미술계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만큼이나 많다. 그는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이자 월간 <서울아트가이드>의 편집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과 한국미술정보센터의 관장, 또 최근에 결성된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의 협회장을 맡고 있다. 미술계에서 그는 이미 유명 작가의 이름만큼이나 친숙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 미술자료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고 지난 40년간 꾸준히 자료를 수집, 연구, 활용해왔다. 지난 30년간 미술전문지로서 <미술세계> 역시 꾸준히 한국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자료들을 정리, 출간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김달진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미술정보센터의 공간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본지 발행인이자 대표이사인 백용현 사장이 직접 김달진 관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자리에서 한국미술 아카이브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었다.

인터뷰 | 백용현 본지 발행인 | 정리 | 안창현 기자 | 사진 | 김흥규 팀장

김달진미술연구소에는 수십년 된 미술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수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생들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기도 한다. 김달진미술연구소는 미술 관련 정보지 발행, 인터넷 미술종합포털 운영, 대중에게 공개되는 한국미술정보센터 등으로 그 활동이 분화되어 있다. 물론 수집된 자료들은 꾸준히 업데이트 된다. 연구소는 국내 미술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 지난 2001년 12월 개소해 한국 미술정보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여기서 발행하는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최신의 미술 전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지로, 6월 현재 통권 138호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또 인터넷 시대에 발맞춰 2002년 9월에 미술종합포털 ‘달진닷컴(www.daljin.com)’을 오픈하고 매일 업데이트 되는 미술계 뉴스, 미술인 인명사전 등 광범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미술자료열람실은 2010년 한국미술정보센터 개관을 계기로 대중의 편익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열린 공간으로 변신을 꾀했다. 또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40여 년간 모아온 자료 가운데 사료적 가치가 큰 기록물과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해 국내 최초 미술자료 전문박물관으로 2008년 개관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기획전과 상설전을 통해 평소 공개하기 힘든 미술자료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김달진 관장은 오랜 세월을 통해 체계적으로 미술 관련 자료들을 확장시키며 아카이브를 축적해왔다. 한 사람의 오랜 열정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 한국 근대미술 자료의 수집

현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단행본 및 작가 화집이 2만 1천권, 정기간행물 335종 9천600여 권, 미술학회지 57종 1천여 권, 논문 650여 권, 팸플릿 1만 7천여 점, 작가 개인 파일 270여 권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박물관 측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료는 작가 개인 파일이다. 유명 국내 작가 270명을 선정, 그들의 행적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신문문을 스크랩해 두었다. 아무리 작은 행적이라도 화가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꼼꼼하게 스크랩해 둔 덕에 본인의 자료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작가들조차 이곳에 오면 놀란다고 한다.

“처음부터 미술자료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우표나 담뱃갑, 껌상표 이런 것들을 취미로 모이기 시작하다 그 당시 여성잡지에서 화보로 세계 명화들이 한 장씩 켜로 인쇄로 소개되었다. 그때는 화집을 켜리로 보기도 힘들었고, 지금처럼 좋은 미술 전시회가 많지도 않아 모을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었다. 그런 것들을 뜯어서 모으는 것이 내게 큰 재미였던 것 같다.”

그러다 1972년, 김달진 관장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한국 근대미술 60년>전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경복궁 내 국립현대미술관(현재 경기도 과천시 위치)에서 열린 <한국 근대미술 60년>전은 1900년대 이후부터 60년간 우리나라 근대미술 작품을 모아 보여주는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에서 이중섭, 박수근 등 우리나라의 유명한 근대작가 작품을 육안으로 봤던 그는 단순한 그림 감상을 넘어 또 다른 것을 느꼈다. 바로 유명 작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작가들에 대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달진 관장은 외국 작가들의 명화만 모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그 때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헌책방, 고서점 등을 드나들면서 오래된 미술 관련 책과 우리나라 근대 작가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나갔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방문



미국 미술평론가 로버트 C. 모건 박사(2012.12.4)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다른 일을 하던 김달진 관장은 미술자료 수집에 관한 일이 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미술관, 화랑, 미술잡지사 등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보내 1978년 월간지 <진시계>에 입사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김달진 관장은 수기로 일일이 카드 작성을 해 나가면서 한국 근대작가 인명록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잡지나 다른 매체에 글을 기고하게 된다. 그 후 당시 홍익대학교 이경성 박물관장(이후 국립현대미술관장 역임)에게서 한 번 와보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김달진 관장은 이경성 박물관장의 연락을 받고 그때까지 서양미술 자료를 유과별로 색컨트지에 정리해 놓았던 스크랩북 15권을 보자기에 싸가서 보여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의 인연으로 그는 1981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본격적으로 근무하며 미술자료들을 수집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김달진미술연구소 개소

1996년 그는 15년 동안 일했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떠나 당시 가장 큰 화랑 중 하나인 가나 아트센터에서 5년 10개월간 자료실장과 총괄팀장을 역임했다. 그 이후 2001년 <서울아트 가이드>를 창간하면서 개인연구소인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열게 된다. 김달진미술연구소는 2007년에 경북공역 근처 종로구 통의동으로 이전했다. 그때도 많은 미술자료를 소유했던 그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수집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미술자료실을 개관했다. 처음엔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외부인들에게 공개하는 열람실 수준이었다. 일 년 뒤인 2008년, 그는 기존에 있던 미술자료실을 법적 조건에 맞춰 새로 갖추고 2종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이렇게 해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정식으로 개관하게 된 것이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2종 박물관으로 등록되면서 그는 소장품의 질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직접 발품을 팔며 자료를 수집했다. 그의 노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박물관 소장품의 질이 높아졌고, 도리어 미술관이나 갤러리 쪽에서 전시 관련 자료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는 미술자료 수집 이외에도 미술 전시와 관련된 많은 일을 추진했다. 전국 미술관 및 갤러리의 정보를 알려주는 월간 <서울아트 가이드>, 지난 전시회의 도록을 매매할 수 있는 미술 서적 온라인 쇼핑몰 '달진북닷컴(<http://www.daljinbook.com>)', 그가 가진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한국미술정보센터 등을 만들었고,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비엔날레에 참석할 수 있는 '김달진 아트투어'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잡지를 만들다가 사무실 한국석에서 소장품을 보여주던 것이 규모가 커져 박물관이 되고, 또 그것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려다보니 정보센터가 열게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미술자료의 수집을 통해 그 분야가 확장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 한국미술 아카이브의 내일

오랜 기간 한국 미술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김달진 관장은 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2차 자료들을 생산하는 일에도 매진하였



위  
성신여대 대학원 석·박사생 현장수업 (2013.6.11)  
문화계 핫피플 핫이슈 첫번째 강연  
김백기, "홍대 앞 문화가 뭐길래?" (2012.10.18)



다. 관련 자료집과 사전 등을 편찬하고, 세미나와 기획전, 특별전들을 통해 일반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미술계에서 그의 이러한 활동이 낳은 성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서울아트가이드> 6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그의 글이 실려 있다.

“지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한국미술정보센터는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0 예술전용 공간임차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홍대부근으로 이사를 와서 2012년 2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2014년 9월 30일까지 2년 조건부 연장이다. 건물 전세보증금은 9억 7,000만 원인데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인 8억 2,700만 원을 문예위에서, 차액인 1억 4,300만 원은 자체 부담을 한 것이다. 김달진미술연구소도 1/n을 부담했지만 사무실로 일부 사용은 불허해 월세 220만 원으로 별도 사용하고 있다.

한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세간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한국미술정보센터라는 명칭으로 정부에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을 지원 받는 것은 없다. 이사 올 때 건물 인테리어비 7,000여만 원도 자부담이었는데 4년은 우리에게 쬐다.

내가 내린 결론은 결국 아카이브 일은 한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미술아카이브 투자는 국가의 책무’(서울아트가이드 2013. 5월호)이다. 그러나 내가 조건부 기증의사를 밝힌 이유는 이용길 씨가 부산시립미술관(서울아트가이드 2007년 5월호), 고복순 씨가 광주시립미술관(서울아트가이드 2008년 5월호), 윤범모 씨가 전북도립미술관(서울아트가이드 2011년 2월호)에 각각 많은 자료들을 기증했지만 아직도 일반에 공개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알기 때문이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골치 아픈 이 일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자료의 문화재적 가치를 알고 최상의 미술아카이브를 건립하고 펼쳐나갈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분야를 막론하고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술분야 역시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여 뒤늦게 관련 세미나들도 다수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한국 미술자료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과 한국미술정보센터의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여전히 우리들의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 씁쓸하게 한다.☐